

# 해외에서 생과일·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!

- 검역본부, 여름철 여행 성수기(7. 29.~8. 11.) '특별검역기간' 운영

제 공 일	2019. 7. 23.	제공부서	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
담 당	휴대품검역2과 농업사무관 주용범	전 화	032-740-2035
쪽 수	2p	별첨자료	2p

## 《 주 요 내 용 》

◇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7.29일부터 8.11일까지 2주간 '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기간'을 운영

○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생과일, 축산가공품 등 검역물품을 집중 검색하고,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(지역본부장 김기훈, 이하 '검역본부')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검역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,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·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2주간(7.29.~8.11.) 특별검역을 실시한다.

○ 작년 여름철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는 178건의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하였으며,

○ 올해 6.1일부터는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,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□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,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하물에 대한 X-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,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층 강화된 검색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, 금지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·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\* 2018년 인천공항에서는 금지물품 296톤(농산물 178톤, 축산물 118톤)을 폐기. 농산물은 망고(43톤)·사과(18톤)·고추(9톤), 축산물은 소시지(47톤)·우육(23톤)·돈육(20톤) 순이었다.

□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“해외에서 생과일과 축산가공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만약 농·축산물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·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<참고>



여행객 수하물 X-ray 검색 장면



검역 탐지견 검색장면



검역관 검역장면



수하물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